

권두언

2025년 12월 3일에 발표된 비상계엄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도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을 금방 해제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민주주의를 원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광장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 특히 중국인 혐오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거나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드물지 않게 보였고, 중국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혐중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미 존재해 온 다양한 혐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가 권리를 누리거나 요구하는 곳에서는 격한 비난과 혐오가 쏟아집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거나 안전을 요구하는 현장의 바로 옆에는 그걸 조롱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는 집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욕설이 난무하고, 성소수자 퀴어축제 장소에는 그걸 저주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집회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에 귀가 먹먹해집니다. 한때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이뤄지던 혐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져 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인권연구자들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계해서 이번 『인권연구』 8권 1호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 뛰어난 연구결과물들이 실렸습니다.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글로벌 기업 및 한국 주요 기업의 인권실사 현

황 비교 분석: 기업인권벤치마크를 기반으로”는 수출중심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인권실사를 맞아 문제가 무엇인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과 퇴행적 인권 담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사이의 기간에 극우 유튜브 채널이 ‘인권’을 사용하는 맥락과 레토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 담론의 위기와 민주적 공론장 재건의 시급성을 제기합니다.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는 아동보호체계에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제도적 의의를 검토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운영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권 감수성의 이해와 적용: 대학 인권 교과 참여 사례를 통해”에서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올바른 인권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보여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제: 도민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인권정책의 경험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올바른 인권정책을 위한 제언들을 보여줍니다.

한편 현장논단에는 두 개의 글이 실렸는데,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절차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대한민국 제20-22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향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법인격 인정 상황과 도전과제: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 인터뷰”에서는 저명한 환경법학자 클라우스 보셀만(Klaus Bosselmann)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오테아로아의 노력을 소개하고 자연의 법인격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권연구』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더 나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인권연구』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편집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이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의 모든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6월
한국인권학회장 박경태